

# 권영수 “5G, 3등에 절호의 기회… 홈미디어 강자 부상”

(LG유플러스 부회장)

MWC 2018

AI 스피커 ‘클로버’ 시장반응 호평  
IPTV·홈IoT 등 자리매김 강조  
무제한 요금제로 모바일 차별화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내년 3위 사업장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과제로 5G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수 부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이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와 관련 “3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가

있을 때가 절호의 기회”라며 “5G 시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LG유플러스가 홈·미

디어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난해 말 출시한 AI(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버’의 시장반응이 좋다”며 “고객들은 AI 스피커로 음성을 제어하니 편리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고, IPTV 또한 영화검색 등의 기능들이 잘 정리돼 IPTV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AI 스피커·IPTV·홈IoT 세 가지 무기로 홈미디어 사업의 확실한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부회장은 5G의 사업모델 발굴에 대해서는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5G 하면서 돈벌기 쉽지 않겠다는 얘기 이구동성으로 한다”며 “5G 서비스는 B2B(기업)와 B2C(소비자) 영역으로 나뉘는데 B2B는 여러 사업 모델이 나와 있지만 규모

가 크지 않고, 의미 있는 규모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2C 시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 모델은 AR·VR(증강·가상현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진도가 3개월 6개월 전과 비교해 빠른 것 같지 않다. 이런 속도면 내년 상용화할 때 고객이 선택 고가의 요금제를 쓰면서 5G에 가입할까 생각해봤다. 눈에 들어오는 서비스가 보이지 않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권 부회장은 5G 서비스의 사업 모델 한계 극복 방안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회사들과 5G B2B USECASE 서비스 정보 역량 교환하고 있고 이는 큰 수확”이라며 “B2B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모바일 사업의 차별화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무제한 요금제는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진정한 무제한은 아닌데 우리는 진정한 무제한 요금제 출시했다”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백업플랜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월 8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는 케이블 TV 인수와 관련해서는 “CJ헬로콤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관심이 있다”며 “케이블 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서두르지 않고 다각도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신재생 발전 토털 솔루션’ 日 공략 나서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18’ 참가  
LS산전, ESS·DC·AC 등 시스템



LS산전은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18’ 행사에 참가했다.

LS산전이 태양광을 비롯해 ESS, DC(직류)/AC(교류) 전력 솔루션 등 신재생 발전시스템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산전은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18’ 행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LS산전은 이 전시회에서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에서 PV 시스템 엑스포로 자리를 옮겨 참가했다. PV 시스템 엑스포에는 31개국 1570여 개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참여했다.

LS산전은 이번 전시회 컨셉트를 ‘신재생 발전 시스템 토털 솔루션 공급업체’로 잡고 역대 최대인 총 16.2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특히 지난해 일본 홋카이도에 준공된

치토세 메가솔라 발전소의 운영 관리 현황을 한눈에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재구성했다. 39MW급 치토세 태양광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진행한 총 11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LS산전이 책임준공과 발전효율을 보증하면서 설계·조달·시공(EPC) 및 향후 20년간 운영·유지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합천댐·청풍호 수상태양광,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대표 레퍼런스에서부터 RMU(전력개폐장치), 서거차도 DC 아일랜드와 같은 DC 솔루션, 신재생 발전 전용 기중 차단기를 비롯한 스마트 AC 솔루션,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관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신재생 발전시스템 분야의 토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KT 60세 정년퇴직자 ‘컨설턴트 제도’ 시행

KT가 안정적인 시니어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퇴직 직원 재고용과 적극적인 전직 지원 교육을 본격화 한다.

KT는 60세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전문성이 뛰어난 기량을 재고용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정년퇴직자가 처음 발생하는 올해부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을 실시하며, 선발 기준은 재직시 직무 전문성, 업무 성과, 인사평가 등이 반영된다.

첫 선발은 올해 1~6월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8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최종 선발이 확정된다. 이후 선발은 매 분기 별로 진행한다. 방침이다.

시니어 컨설턴트로 선발된 직원은 최장 2년간 고용되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KT의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은 직원에게는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에는 숙련된 전문가를 지속 고용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는 정년 퇴직 예정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체험형의 전직 교육을 지원한다. 개인별 자기진단을 통해 창업, 귀농, 재취업 과정으로 특화된 교육 중 선택해 1개월간 현장실습 및 견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퇴직 후 1년간 구체화된 개별 사업 및 재취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1:1 컨설팅, 자영업 취득 등 지속적인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KT 빅데이터기반의 상권분석 시스템으로 지역과 프랜차이즈별 경쟁현황, 배후지정보, 예상매출 등을 분석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 한국지엠 고객 신뢰 회복 ‘쉐비 프로미스’ 진행

한국지엠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3월 한 달간 ‘쉐비 프로미스’ 프로모션 진행한다.

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 기간 크루즈, 올란도, 캡티바 등 주력 제품에 대해 최대 12%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다마스과 라보 또한 기존 고객 재구매 시 5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객의 제품 경험을 개선하고자 기존 대리점 시승센터를 벗어나 생활 밀착형 시승 운영을 확대한다. 이달 중 전국 18개 이마트에서 쉐보레 스마트 시승센터 운영하는 한편, 말리부와 트랙스의 온라인 시승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쉐비 프로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파크와 말리부, 트랙스의 기존 보증 기간에 2년을 추가 적용해 5년 또는 10만km까지 확대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루즈와 올란도, 캡티바의 3년 후 중고차



가치를 55%까지 보장하는 중고차 가치 보장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백범수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3월에는 차질 없고 수준 높은 차량 정비 서비스와 가치 하락 없는 상품성에 대한 고객 확신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이번 쉐비 프로미스를 통해 고객 안심은 물론 놓칠 수 없는 구입 혜택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중공업-스위스 ‘가스엔디젤’ 선박엔진 진단기능 고도화 업무협약

현대중공업그룹은 스위스 엔진메이커인 빈터투어 가스엔디젤(WinGD)사와 ‘선박 엔진 진단기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일렉트릭이 개발한 통합 스마트선박 솔루션 ISS와 WinGD 측이 개발한 엔진 진단시스템(EDS) 및 엔진데이터 수집장치(DCM)가 연계돼 선박 엔진에 대한 모니터링, 고장 진단, 원격서비스 지원 서비스 등이 강화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해운업 불황 속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해운’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운항관리 체계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는 ‘e-내비게이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 SK매직 IoT 탑재 빌트인 가스레인지 출시

SK매직은 빌트인 가스레인지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빌트인 IoT 쿡탑 가스레인지’ (사진)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사물인터넷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밖에서도 버너의 작동(ON·OFF)상태를 확인하고 가스불을 끌 수 있다. 특히 불을 끄면 가스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

누군가가 가스불을 켜면 팝업 메시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필요시엔 잠금기능을 설정, 가스레인지 불을 켜지 못하게 조치할 수도 있어 고령자 및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빅데이터와 요구를 분석한 설계와 디자인으로 청소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상판 청소 시 음식물이 깔 수 있는 틈새와 홈을 최소화한 유선형 구조 설계를 시작으로 스크래치 방지와 음식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고급 4중 코팅 불랙펄 상판’과 청소가 용이한 ‘완전 분리형 버너’를 채용해 손쉬운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라면, 국, 찌개 등이 끓으면 음성으로 알려 주어 다른 집안일을 하다가도 정확한 시간에 조리가 가능하며 사용시 조작부와 레버에 LED램프가 점등되어 멀리서도 작동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다. /김승호 기자 bada@